

파생도 겸하는 굴절, 한국어의 전성어미

문숙영
(서울대학교)

Mun, Suk-yeong. 2022. Inflections Accompanied by a Change in Word-class in Korea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47-4, 777-807. This paper argues that Korean endings ‘-이’, ‘-게’, ‘-음’ and ‘-기’ should be understood as inflections that are accompanied by changes in word class. Ultimately, word formation can be created not only by affixes but also by the inflectional elements, such as endings and case markers in Korean. The goal here is to emphasiz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inflection and derivation is more analogous to that of a spectrum. The Korean language uses endings and postpositional particles to produce grammatical connection and meaning and has verb-type adjectives, which inevitably leads to those endings and particles being necessary for achieving changes in word class. It is no coincidence that the best example of an adverb-derived affix and a noun-derived affix both share the same form as that of the adverbial clause and nominalized clause used in the language of the contemporary era. (Seoul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inflection, derivation, adverbial ending, nominalized ending, suffix, verb-type adjectives

1. 서론

본고는 동형의 어미와 접사를 가지는 것으로 기술되어 온 ‘-음’과 ‘-기’, ‘-이’와 ‘-게’ 등은 단어부류의 변화를 동반하는 굴절의 하나임을 주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파생만이 새로운 어휘소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며, 굴절과 파생은 이분되기보다 정도 차이를 보이는 연속적(continuum)인 현상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본고는 예컨대 ‘울음’이 파생명사라고 해서 ‘음’이 접사일 가능성이 우선 탐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음’이 어미일 가능성이 우선 배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파생은 어기의 단어부류를 바꿈으로써 새로운 어휘소를 만드는 형태적 과정이다. 예를 들어 ‘먹다’에 접사가 붙은 ‘먹이, 먹히다, 먹이다’는 다 별도의 어휘소이다. ‘먹다’와는 다른, 새로운 개념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굴절은 어기의 단어부류는 바꾸지 않고 단어의 형태만 바꾸는 과정이다. ‘먹었다, 먹는데, 먹은’은 여전히 동사 ‘먹다’의 일원이다. 이들은 ‘먹다’와 다른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통사적

환경에 따라 모양만 바꾼 것이기 때문이다.¹

그런데 굴절/파생의 개념적 차이가 분명한 것과는 달리, 새로운 어휘소가 만들어졌는지 단어형이 바뀐 것에 불과한지를 판단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일례로, ‘당연히’와 ‘당연하게’는 ‘당연하다’와는 다른 어휘소인가, ‘당연하다’의 다른 단어형인가. 한국어 문법은 ‘당연히’는 부사, ‘당연하게’는 부사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는 ‘당연하다’와는 다른 새로운 개념을 지시하고, ‘당연하게’는 ‘당연하다’와 동일한 개념을 지시하는가.

그간 굴절과 파생은 정도 차이가 있는 연속체적인 개념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구분은 이분법적으로 해 왔다. 굴절은 새로운 어휘소를 만들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전제가 이어져 왔고, 그래서 복합어의 직접구성성분에 의존적 요소가 있으면 그것은 접사로 분류되었다. 이런 구분은 ‘이, 게’와 ‘음, 기’에도 이루어져서, 부사 ‘당연히’의 ‘이’는 접사, ‘당연하게’의 ‘게’는 부사형어미, 명사 ‘삶’의 ‘음’은 접사, ‘바름’의 ‘음’은 명사형어미로 불려 왔다.² 그런데 과연 이들이 접사와 어미로 구별될 만한 것인지, 정말 접사의 자격으로 부사나 명사의 단어형성에 참여했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대표적인 부사파생접사와 명사파생접사가 각각 당대의 부사형어미 및 명사형어미와 형태가 동일한 점은, 우연한 것이기 어렵다.

한국어는 어미와 조사로 문법적 의미와 관계가 표시되는 언어인 데다가 동사성 형용사를 가지므로, 단어부류의 전환에 어미의 기여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영어의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는 형용사 어간에 ‘은/을’이 붙어야 하고, 영어의 부사처럼 동사를 수식하기 위해서는 형용사 어간에 ‘이’나 ‘게’가 붙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형용사에서 관형어를 만드는 과정이나 형용사에서 부사를 만드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적 과정으로 가정할 이유가 없다. 공히 단어부류가 바뀌는 굴절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Haspelmath(1996)은 단어부류의 변화를 동반하는 굴절이 세계의 다양한 언어에서 발견된다고 하고, 파생만이 단어부류를 바꾼다는 생각은 일종의 ‘신화’라고 할 바 있다. 본고는 이 주장에 적극 동의하며, 한국어는 단어부류가 바뀌는 데 어미가 크게 기여할 수밖에 없는 언어임을 논의할 것이다. 단, 지면의 한계로 주된 논의는 부사형어미 ‘이’와 ‘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필요한 경우 관형사형어미와 명사형어미를 언급할 것이다.

¹ 본고의 ‘굴절’은, 어휘소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파생과 대별되는, 하나의 어휘소가 보이는 단어형들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즉 본고의 ‘굴절’이라는 술어는 형태적 관계가 ‘파생과 굴절’로 대별되어 온 전통을 반영한 편의상의 선택일 뿐, 한국어의 어미가 굴절접사라거나 어미 활용이 굴절이라는 생각을 담은 것은 아니다. 형태적 관계의 두 축으로서 ‘파생’과 대별되는 술어로는 ‘굴절’만한 것이 없다.

² 어미의 경우, 처음 언급할 때만 하이픈을 표시하고, 불필요한 지면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후부터는 표시하지 않는다.

2. 접사설 및 어미설의 근거와 쟁점

한국어의 문법 기술에서 ‘이’는 접사이고, ‘게’는 연결어미이다. 그래서 ‘빨리’는 부사, ‘빠르게’는 부사절로 불리고, “시간이 빨리 간다”는 단문, “시간이 빠르게 간다”는 복문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과연 ‘빨리’와 ‘빠르게’ 사이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

그간 ‘계’에 대해서는 꾸준히 어미로만 기술되어 왔고 접사설이 제기된 적이 없다. 즉 새로운 어휘소를 만드는 능력은 인정된 적이 없다. 반면에 ‘이’에 대해서는 파생접사로 보는 견해와 어미로 보는 견해가 갈려 왔다. 다음은 ‘이’를 파생접사로 본 황화상(2006), 황화상(2013), 김일환(2007), 김종록(1989) 등에서 주요 근거로 삼은 것들이다.

- ‘이’를 파생접사로 볼 만한 근거
 - ① 형용사에 한해 주로 붙는다.
게다가 모든 형용사에 붙는 것도 아니다.
 - ② ‘이’ 부사의 의미가 여기에서 멀어진 경우가 상당하다.
 - ③ ‘이’ 부사는 서술성이 별로 없다.
‘이’형이 논항을 취하는 예는 그 수도 극히 적을 뿐 아니라, ‘-와 함께’처럼 부사가 논항을 취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도 있다.
 - ④ ‘이’형과 ‘게’형 사이에 분포의 차이나 의미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³

반대로 ‘이’를 어미로 보는 우순조(2001), 최응환(2003)에서는 다음을 그 근거로 든다.

- ‘이’를 어미로 볼 만한 근거
 - ① 형용사에서 ‘이’ 부사가 도출되는 비율은 매우 높다.
 - ② ‘이’ 파생부사의 사전의 뜻풀이는 대개 대응 형용사의 의미에 의존한다.
 - ③ ‘이’ 부사가 형용사 어기의 내부 논항을 취하는 일이 있다. 또한 ‘철저히 하다, 소홀히 하다, 분명히 하다’처럼 ‘이’형이 필수성분인 경우가 있다.

3 '이' 외에, '깨끗-'이나 '깊숙-'처럼 어근에 결합하는 '이'를 근거로 드는 일도 있다. 이런 어기 뒤에는 어미가 직접 결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원적으로 '깊숙하-'에 '이'가 결합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구본관(2004)에서는 중세국어를 보면 「꺾히/꺾기, 번득히/번지기; 떠던히/떠더니, 줌츰히/줌츰이; 맛당히/맛당이」와 같이 동일한 어기가 '이'와 '히'를 모두 가지는 예가 많으므로, 이들도 「Xㅎ-」을 어기로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설명하기 쉬우며, '히'인가 '이'인가 하는 문제는 'ㅎ'의 탈락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Xㅎ+이」의 결합에서 X의 끝소리가 「ㄱ, ㄷ, ㅂ, ㅅ」와 같은 무성음일 때는 부사의 끝소리가 '이'인 경우가 우세하다고 하였다.

- ④ 많은 경우 ‘이’형과 ‘게’형이 수의적으로 교체될 수 있다.

그간의 견해 차이는 근거로 삼은 현상 자체가 다르다기보다, 동일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갈린 것이다. 일례로, 모든 형용사에서 ‘이’ 부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파생접사로 볼 만한 근거가 되었다면, 반대로 꽤 많은 형용사에서 ‘이’ 부사가 만들어진다는 점이 어미로 보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형용사 어기의 의미와 떨어진 ‘이’ 부사가 있다는 점을 중히 여기면 접사로 분석되었고, 형용사 어기와 의미가 유사한 ‘이’ 부사가 많음을 중히 여기면 어미로 분석되었다. ‘이’와는 달리 줄곧 어미로만 불려온 ‘게’는, ‘이’를 접사로 보아온 근거와 정확히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 ‘게’가 어미인 근거
 - ① 형용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사에도 ‘게’가 결합될 수 있다. 즉 결합 제약이 없다.
 - ② ‘게’ 결합형은 어기의 의미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 ③ ‘게’ 결합형은 주어를 상정할 수 있는 등, 서술성을 가진다.

그런데 ‘게’의 이런 양상과 관련해서도, ‘이’가 ‘게’와 다른 점은 접사의 증거로, 비슷한 점은 어미의 증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를테면 ‘이’형과 ‘게’형 사이에 의미 차이가 있는 경우를 중히 여겨 ‘이’를 접사로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가 하면, ‘이’형의 상당수가 ‘게’형과 수의적으로 교체 가능하다는 점을 중히 여겨 ‘이’를 어미로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 왔다.

따라서 쟁점은 현상 자체에 있기보다, 해당 현상을 접사/어미 판단의 근거로 삼는 이유나 타당성에 놓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접사/어미 판단의 쟁점들
 - ① ‘이’형의 어기 제약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정도의 제약은 파생으로 볼 만한 것인가, 굴절로 볼 만한 것인가.
 - ② 형용사 어기와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진 ‘이’형은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의미의 변화가 과연 파생의 근거가 될 만한가.
 - ③ ‘이’형과 ‘게’형의 교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교체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 하나는 접사이고 다른 하나는 어미로 볼 근거가 되는가.
 - ④ ‘이’형은 대개 논항을 취할 수 없고, ‘게’형은 늘 논항을 취할 수 있는가. 논항을 취할 수 없으면 파생부사, 즉 접사가 결합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무엇보다, 서술성이 파생부사와 부사형을 가리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가,

이는 타당한가.

결국 접사인가 어미인가 하는 판단은, 굴절과 파생의 구분 선을 어디에 두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원형적인 굴절 이외의 것은 모두 파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도성을 인정해서 서로의 속성을 겸하는 부류가 있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본고는 ‘이’를 어미로 본 우순조(2001)의 주장과 근거를 지지하며,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어의 ‘이, 게, 음, 기’ 등은 파생과 굴절의 속성을 모두 보이는, 단어부류의 변화를 동반하는 굴절로 이해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본고와 비슷한 입장으로는 최웅환(2003), 김민국(2008)이 있다.

3. ‘이’, ‘게’의 굴절과 파생의 속성

3.1. 적용의 완전성 정도

여기의 결합제약 여부를 살펴보자. 몇몇 논의에서는 ‘이’가 형용사에 주로 결합되는 점을 파생의 근거로 삼아 왔다. 그러나 부사가 주로 형용사에서 도출되는 일은 언어 보편적인 현상이다. 일례로, 영어의 ‘ly’도 주로 형용사에 결합한다. 따라서 부사화 형식이 형용사에 주로 결합되는 점은, 결합 여기의 제약 즉 파생의 빈칸을 보여주는 현상이 아닐 수 있다. 다양한 언어에서 보이는, 형용사로부터의 부사 도출을 일괄 파생으로 분류하지 않는 한, 한국어에만 국한된 제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형용사이지만 ‘이’가 결합될 수 없는 부류가 있다. 이런 결합제약은 송철의 (1992: 240-251)에서 자세히 다루어졌는데, 다음 (1), (2)가 대표적인 것들이다.⁴ 우선, 기원적으로 ‘-압/엎-’이나 ‘-브-’가 붙어 형성된 형용사는 ‘이’ 부사 파생이 많이 이루어진 편이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다. (1가)는 ‘-압/엎-’이 있는 형용사에서, (1나)는 ‘-브-’가 있는 형용사 중에서도 ‘이’ 부사가 불가능한 단어들이다. 여기가 복합형용사인 경우에도 ‘이’ 파생이 많이 이루어지지만 (1다)처럼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 가. 간지럽다-*간지러이, 시끄럽다-*시끄러이

cf. 어지럽다-어지러이, 부드럽다-부드러이

⁴ ‘이’ 파생 부사 중에서, 반복복합어(명사반복어)에 붙는 경우 ‘집집이, 날날이, 다달이, 간간이, 걸음걸음 이’와 부사로부터의 부사 파생된 경우 ‘일찍이, 더욱이, 허죽이’ 등은 제외하였다.

나. 아프다-*아피, 고프다-*고피
 cf. 어엿브다-어엿비, 구슬프다-구슬피
 다. 손쉽다-*손쉬이, 약삭빠르다-*약삭빨리
 cf. 재빠르다-재빨리, 수많다-수많이

다음 (2)는 대체로 ‘이’ 부사가 불가능한 경우들이다. 빗형용사, 미각형용사, 후각형용사는 (2가)처럼 ‘이’ 파생이 불가하다. 또한 ‘-다랗-, -맞-, -긋-, -찍-, -지-’에서 형성된 형용사는 (2나)에서 보듯이 ‘이’ 부사가 파생되지 않는다. 이는 접사 ‘-롭-, -스롭-’이 결합한 형용사는 예외없이 ‘이’ 부사 파생이 가능한 것과 대조된다. (2다)는 ‘-거리-’가 결합되는 동작성 어근들은 ‘이’ 파생이 안 되지만, 상태성 어근일 때는 오히려 ‘거리’ 결합이 불가능하고 ‘이’ 부사 파생은 가능함을 보여준다.

(2) 가. 밝다-*, 어둡다-*, 달다-*, 땀다-*, 맵다-*, 비리다-*
 나. 굵다랗다-*, 좁다랗다-*, 능글맞다-*, 청승맞다-*, 알긋다-*(cf. 짓긋다-짓긋이); 객찍다-*, 겸연쩍다-*, 건방지다-*
 다. 머뭇거리다-*머뭇이, 반짝거리다-*반짝이, 쑥덕거리다-*쑥덕이 ↔ *오뚝거리다-오뚝이, *깜찍거리다-깜찍이, *수북거리다-수북이

그런데 ‘게’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위에서 ‘이’ 부사 파생이 안 되는 형용사에 ‘게’를 결합해 보면 위의 (2다)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능하다.

(3) 가. 간지럽게, 시끄럽게, 어지럽게, 부드럽게
 나. 아프게, 고프게, 구슬프게
 다. 손쉽게, 약삭빠르게, 재빠르게 (cf. *수많게)
 라. 밝게, 어둡게, 달게, 땀게, 맵게, 비리게
 마. 굵다랗게, 좁다랗게, 능글맞게, 청승맞게, 알긋게, 짓긋게, 겸연쩍게, 건방지게, 야무지게

굴절과 파생의 차이에는 적용의 완전성 여부, 즉 그것이 두루 적용되느냐 일부에 국한되느냐 하는 점이 있다. 굴절은 대개 예외 없이 적용됨으로써 아주 생산적이지만, 파생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일반론에 기대면, 결합계약이 있는 ‘이’는 파생접사, 결합계약이 별로 없는 ‘게’는 어미에 가까워 보인다.

그런데 ‘이’의 결합계약은 다른 파생접사들과 경향이 꽤 다르다. 보통의 파생접사들은 결합계약의 조건을 명세하는 것도, 결합 가능한 어기의 범위를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일례로 ‘개’는 ‘지우개’처럼 도구명사가 가능할 만한 동사에 붙을 것 같지만, ‘(방을) 치우다’에 붙은 ‘*치우개’ 등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중세한국어에

서의 ‘암/엄’도 ‘주검, 마감, 무덤’ 등 극히 일부의 어기에만 붙었다. 또한 비교적 생산성이 높은 파동접사만 하더라도 ‘-이-, -히-, -리-, -기-’가 결합한 파동사의 수는 전체 동사에 비해 극히 적으며, 현대한국어의 관점에서는 접사의 선택 조건도 기술하기 어렵다. 이런 점을 보면 ‘이’는 (접사성이 별로 의심되지 않는) 전형적인 파생접사에 비해서는 결합제약이 덜하고 어기 범위에 대한 짐작도 상대적으로 가능하다.

많은 언어에서 부사는 형용사에서 파생된다. 이는, 부사를 만드는 형식은 적용의 완전성 차원에서 다른 접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대표적인 예가 영어의 ‘ly’이다. Haspelmath(1996)은 ‘ly’를 단어부류를 바꾸는 굴절이라 하면서, ‘ly’가 때때로 파생접사로 분류되었으나 이의 타당성이 증명된 적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앞서 Quirk et al.(1985)에서도 ‘ly’의 결합은 거의 굴절적인 것으로 간주될 만하다고 한 바 있다.

Haspelmath(1996)은 굴절/파생 구분의 기저에는 굴절형은 오로지 문법 패러다임에 의해 기술되고, 파생형은 일일이 사전에 열거된다는 직관이 깔려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왜 언어학자들이 어떤 형태적 과정은 패러다임에 의해 기술하고 어떤 것은 사전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기술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들이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굴절과 파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굴절과 파생의 정의(Haspelmath 1996: 49)

형성과정이 정규적(regular)이고 일반적이며 생산적이면

⇒ 그 형성은 굴절적이다.

형성과정이 비정규적이고, 비어있는 곳이 있으며, 비생산적이면

⇒ 그 형성은 파생적이다.

새 단어가 규칙에 의해 형성되면 → 생산적

단어가 어떤 개체특이적인 추가 속성을 가지지 않으면 →정규적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어기에 이런 형태적 과정이 허용되면 → 일반적.

영어의 ‘ly’는 형용사에 꽤 규칙적으로 결합한다는 점에서 생산적이고 일반적이며, 부사로 단어부류를 바꾸는 것 외에 개체특이적인 의미가 크게 추가되지 않는 편이므로 정규적이다. 즉 형성의 속성이 파생보다는 굴절에 훨씬 가깝다. Haspelmath(1996)은 ‘ly’ 외에도 단어부류를 바꾸는 다양한 굴절을 소개하며(4장 후술), 파생만이 단어부류를 바꾼다거나, 굴절은 단어부류를 바꾸지 못한다는 신화는 사라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런 신화가 이토록 오래 이어진 것은 19세기 나 20세기 초에 관련 예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다양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문법 이론이 도입된 탓이라고 하였다.

영어는 명사성 형용사를 가진 언어이지만 한국어는 동사성 형용사를 가진 언어이다. 따라서 범언어적으로 발견되는 ‘형용사로부터의 부사 도출’ 관계에서, 한국어의 부사는 필연적으로 어미가 결합한 굴절형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영어에 비해 월등히 높다. 명사화도 마찬가지이고 관형사화도 마찬가지이다.

거의 굴절적인 형식으로 여겨지는 ‘ly’도, 결합하지 않는 형용사가 있다. 즉 어기의 결합 제약이 있다. 다음은 Huddleston & Pullum(2002: 566)에서 제시한 예와 설명이다.

(4) 가. afraid, alive, asleep; inferior, junior, minor; friendly, lonely, silly, ugly etc.

나. American, British, European; blue, brown, orange, purple etc.

다. big, content, drunk, foreign, good, key, male, modern etc.

(4가)는 형태적인 제약이다. ‘ly’는 ‘a-’로 시작하는 형용사, 라틴어의 비교급 접사 ‘or’로 끝나는 형용사, ‘ly’로 끝나는 형용사에는 붙지 않는다. (4나)는 의미적 제약이다. ‘ly’는 장소명이나 색채어에서 파생된 형용사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물론 ‘whitely, greenly, redly’처럼 색채어지만 가능한 경우도 일부 있다. (4다)는 그 외 ‘ly’가 붙지 않는 단어들을 모은 것이다. 크기와 나이를 가리키는 짧은 형용사에는 ‘ly’가 결합하지 않고, ‘good’의 대당 부사 ‘well’처럼 아예 다른 형태의 부사를 취하는 것들도 있다. 영어의 이런 양상을 보면, ‘이’가 일부 형용사에 결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리 특별할 것이 없다.

사실, 파생/굴절 구분의 여러 기준이 대개 그러하지만, 적용의 완전성 기준도 한계가 있음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어휘소들이 때때로 비어있는 패러다임을 가지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영어의 ‘used to’는 대당 현재형이 없다. 한국어의 명령과 청유의 어미도 동사에 결합되는 것으로 기술되지만, ‘알다(*알아라)’, ‘에타다(*에타라)’, ‘줄리다(*줄러라)’, ‘신바람나다(*신바람나라)’ 등 결합할 수 없는 동사가 꽤 있다.⁵ 줄곧 어미로 불려온 ‘게’도, ‘머뭇거리다’와 같은 일부 형용사에는 결합되지 않음을 앞에서 확인한 바 있다.

반대로, 단어형성이 굴절만큼 완전한 경우가 있는 것도 완전성 기준에 반하는 사례이다. Stump(2005: 54-55)에서는 Haspelmath(1996)의 논의를 받아들여 영어의 비양태 동사가 ‘-ing’의 동명사류를 가지는 것을 비교적 큰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경우로 보았다. 즉 동사에서 명사로 단어부류를 바꾸지만 그 적용은 거의 완전하기 예, 단어부류를 바꾸는 굴절로 본 것이다. 영어의 ‘ly’나 한국어의 ‘이’도 이런 예에

⁵ 최웅환(2003: 376)에서는 국어의 격표지,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등도 경우에 따라 그 실현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결합제약이 있다고 해서 곧 파생접사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바 있다.

해당된다.

3.2. 의미의 정규성 대 특수성

여기와의 의미 차이를 보자. ‘이’ 파생 부사 중에는 분명 어기의 의미와 아주 떨어진 것들이 있다. 다음은 송철의(1992: 255-257)에서 의미적으로 어휘화된 부사로 제시한 예로, 이런 ‘이’부사는 ‘게’형으로의 교체가 어렵다. 의미 차이 때문이다.

- (5) 가. 말없이 {고이, *곱게} 보내 드리오리다.
 나. 그의 이름은 {길이, *길게} 빛날 것이다.
 다. 머리를 {*고이, 곱게} 빗아 내렸다.
 라. 그림자가 {*길이, 길게} 드리워졌다.

다음도 비슷한 예이다. ‘곧이’는 ‘바로 그대로’, ‘굳이’는 ‘고집을 부려 구태여’의 의미로 어기와 상당히 다르지만, ‘곧게’는 ‘빼뺄어지지 않고 똑바르게’, ‘굳게’는 ‘무르지 않고 단단하게’의 의미로 각각 ‘곧다’, ‘굳다’와 크게 다르지 않다.

- (6) 가. 철수는 영이의 말을 {곧이, *곧게} 들었다.
 나. 선을 {*곧이, 곧게} 그어라.
 다. {굳이, *굳게} 가졌다면 보내주마.
 라. 맹서를 저버리지 않기로 {*굳이, 굳게} 다짐하였다.

영어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있다. ‘형용사+ly’형은, 대체로 “형용사와 같은 방식으로”(예, carefully, hastily 등)나 “형용사와 같은 정도로”(예, extremely, surprisingly 등)로 환원되지만, (7)의 각 (b)에서 보듯이 일부는 이런 종류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즉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들도 있다. (Huddleston & Pullum 2002: 565)

- (7) 가. a. their final performance
 b. They finally left.
 나. a. the individual members
 b. We must examine them individually.

그런데 한국어의 ‘이’ 부사는 어기의 의미에서 그다지 멀어지지 않은 경우가 절대적으로 다수이다. 다음은 ‘이’가 결합하는 조건별로 나열한 것이다. (8가)는 ‘X하다’, (8나)는 ‘X없다’, (8다)는 ‘X스럽다’, (8라)는 ‘-압/엎-’에서 형성된 형용사,

(8마)는 ‘X같다’에서 온 부사들 중 일부를 보인 것이다. 이들 중에 ‘솔직히’처럼 화행부사로 쓰이는 용법을 발달한 것이 있을 수는 있으나(3.3.에서 후술) 의미는 여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즉 대부분 ‘형용사와 같은 방식이나 정도로’의 의미를 가진다.

- (8) 가. 각별히, 다분히, 다행히, 당연히, 불행히, 자세히, 조용히, 지극히 등
 나. 난데없이, 느닷없이, 손색없이, 소용없이, 손색없이, 쓸데없이, 쓸모없이,
 아랑곳없이, 어이없이, 염치없이, 틀림없이, 한량없이, 한없이, 형편없이,
 빈틈없이, 빠짐없이, 두서없이, 가뭇없이, 거침없이, 꾸밈없이, 정처없이 등
 다. 표독스레, 가증스레, 미련스레, 영악스레, 변덕스레 등.
 라. 가까이, 가벼이, 까다로이, 날카로이, 남부끄러이, 너그러이, 외로이, 평화로이 등
 마. 악착같이, 하나같이, 한결같이 등

‘게’형은 여기에서 의미가 떨어진 것이 거의 없다. 《표준》에 등재되어 있는 ‘게’로 끝나는 부사도,⁶ 의태어를 제외하고는⁷ ‘아주 몹시’의 의미로 쓰이는 ‘되게’가 유일하다. 이 외에 구어에서 ‘아주’의 의미로 쓰이는 ‘접나게’, ‘자주’의 의미로 쓰이는 ‘뻔질나게’ 등이 있지만, 이런 종류를 끌어 모은다 하더라도, ‘이’나 ‘게’의 의미적 기여를 비정규적이라고 할 만큼은 되지 못한다. 즉 ‘이’나 ‘게’는 부사화라는 파생의 기능을 가지면서, 굴절의 특징인 의미 정규성을 보이는 어미인 것이다.

영어의 ‘ly’에 대해서도 단어형성이 고도의 의미 정규성을 보이는 예로 다룬 기술이 Stump(2005)에서 있었다. 이에 따르면, 굴절형은 어휘소를 넘나들며 동일한 의미적 효과를 가진다. 예를 들어 ‘sang’의 과거 의미는 ‘broke’와 동일하다. 반면에, 파생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진다. 일례로 신조어인 ‘barnumize(과장을 이용하여 홍보하다), dollarize(미국달러를 쓰기 시작하다), posterize(경쟁자를 창피하게 만들다)’의 경우, ‘barnum, dollar, poster’의 의미를 알고 있고 ‘-ize’를 붙여 동사화하는 규칙을 안다 하더라도, 이들 동사의 의미를 예측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 단어형성이 고도의 의미 정규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형용사에 ‘ly’가 붙어 도출된 부사도 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⁸

⁶ 《표준》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가리킨다.

⁷ 의태부사로는 ‘물이-뭇나게: 부득부득 조르는 모양, 불풍-나게: 매우 잣고도 바쁘게 드나드는 모양, 생게-망게: 하는 행동이나 말이 갑작스럽고 터무니없는 모양, 웅게-웅게: 조금 큰 것들이 무질서하게 많이 모여 있는 모양’ 등이 있다.

⁸ 굴절형에서의 의미적 특이성도 흔하지는 않지만 있다. 예컨대 ‘brother’의 복수형 ‘brethren’은 독특한 의미를 가진다. (Booij 2006: 658)

한국어의 ‘이’나 ‘게’의 의미 정규성은, 다른 파생접사와 비교하면 잘 드러난다. 한 예로, 동사에서 명사를 파생시키는 접사 ‘이’만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듯이 ‘사건; 도구; 사람’ 등 추가하는 의미가 단일하지 않다. 즉 예측하기 어려운 의미 부분이 있다.

(9) ‘이’ 파생 명사

- 「1」 봄맞이, 털갈이 : -하는 행위 또는 사건
- 「2」 재떨이, 목걸이, 옷걸이: -하는 물건, 도구
- 「3」 구두닦이: 구두 닦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총잡이: 총을 잘 쏘는 사람 (이상, 송철의 1992: 129-130)

그렇다면, 형용사 어기의 의미와 달라졌거나, ‘게’형과는 의미 차이가 있는 ‘이’형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어미가 아닌 접사가 붙은 것일까. 독자적인 의미는 어휘화의 증거일 수는 있지만, 파생의 결과라거나 굴절형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는 아니다. 어기와의 의미 차이는 공식적으로 ‘굳-, 길-’에 ‘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쓰이기보다 통째로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할 뿐, ‘이’의 자격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바가 없다.

가능한 가정으로는 먼저, 역사성의 차이를 생각할 수 있다. ‘이’형이 고형이므로 의미 변화를 겪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15세기 이후 ‘이’형은 점차 그 쓰임이 줄고 ‘게’형이 분포를 넓혀 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⁹ 따라서 ‘게’형이 ‘이’형을 대체하면서 ‘이’형은 특수한 의미로 좁혀지거나, 혹은 ‘게’형이 ‘이’형이 가지지 않는 의미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쓰이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¹⁰ 유사한 기능에 복수의 언어형식이 존재하는 경우, 이런 식의 변화와 공존은 흔한 일이다.

어기와 다른 의미가 발달하는 것 자체를 자연스러운 일로 볼 여지도 있다. ‘이’는 형용사를 부사로 쓰이게 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어떤 면으로는 ‘이’형이 파생어의 속성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부사라는 범주의 의미기능에 부합하도록 형용사의 의미와 부분적으로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형용사와 부사의 기능

⁹ 구본관(1996: 211-214)은 15세기 ‘이’는 대부분의 형용사에 결합할 수 있었고 생산성이 높았지만, 이런 높은 생산성은 15세기 이후부터는 차츰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파생규칙이 가지는 여러 제약에서 자유로웠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이’가 15세기도 굴절어미로서 존재하고, 파생접미사로서의 ‘이’가 15세기에서 가까운 시기에 굴절어미에서 분리되어 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그 전에 김종록(1989)에서도 15세기에 ‘게’형은 장형사동, 피동구문, 부정구문에 주로 사용되던 것이, 점차 부사형어미 ‘이’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이런 교체가 가속화되었다고 보았다.

¹⁰ 분포를 나눠 말하는 경우로, ‘분명히 하다, 확실히 하다’와 같은 구성에서의 ‘이’형을 들 수 있다. 이 환경에서는 ‘게’형이 잘 못 쓰인다.

차이에서 비롯한 의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많은 언어에서 형용사와 부사 간의 상관관계가 포착되지만, 실제로 형용사로서 많이 쓰이는 의미의 종류와 부사로서 많이 쓰이는 의미의 종류가 다르다.

부사의 의미적 기여와 형용사의 의미적 기여가 꽤 다른, 고빈도의 부사와 형용사를 대조하면 드러난다. 영어의 예이기는 하지만, Payne et al.(2010: 66-72)은 텍스트에서 가장 고빈도로 나타나는 부사와 형용사의 의미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 다음은 고빈도 목록 중 일부로, 괄호 안은 빈도 순위를 나타낸다.

(10) 영어에서 핵심 부사의 의미유형

초점: also(1), just(2), only(3), even(6)..
 정도: very(4), well(5), how(7), too(9)...
 상: still(8), yet(19), already(21)
 연쇄 순서: again(9)
 연결사: however(11), therefore(28)...
 빈도: never(12), always(14), often(17)
 (이하 생략)

(11) 영어에서 핵심 형용사의 의미유형

가치: good(1), nice(8), great(15), alright(16), bad(20)
 유사성: other(2), different(12)
 순서: first(3), last(5), next(9)...
 차원: little(6), big(10), long(18)...
 나이: new(7), old(11), young(34)
 인간적 성향: sure(13), sorry(14), able(18), happy(35)
 (이하 생략)

부사는 ‘초점, 정도, 상’ 등이 고빈도로 쓰인다면, 형용사는 ‘가치, 유사성, 차원, 나이’ 등으로 종류가 아주 다르다. 이는 부사를 통해 표현하는 의미의 종류와 형용사를 통해 표현하는 의미의 종류가 아주 같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게다가 가장 높은 빈도의 부사들은 ‘ly’가 붙어 형성된 것들이 아니다(문숙영 2019).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형용사 중에서도 ‘이’결합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나 ‘이’결합형 중 일부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도록 발전하는 일은, 부사라는 단어 부류의 기능과 소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여지가 생긴다. 상당수의 부사가 형용사에서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부사가 모두 형용사로 쓰일 때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부사라는 품사가 따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3.3. ‘이’형을 대체하는 ‘게’형

‘이’ 부사의 생산성은 중세한국어 이후 점차 약화되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일례로, 단일형태소 어간의 형용사에서 파생된 중세국어의 ‘이’ 부사 중에는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것들이 많으며, 중세국어 이후에 새로 추가된 ‘이’ 부사가 많지도 않다(송철의 1992: 240-241).¹¹

‘이’형 자리를 대신한 것이 ‘게’형이다. ‘게’형은 왕성한 생산성과 분포를 보여준다. ‘이’형이 있는 형용사에도 결합하고 ‘이’형이 불가능한 형용사에도 결합한다. 게다가 일상대화에서는 ‘게’형이 훨씬 선호되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이’형과 ‘게’형이 모두 가능한 환경이 있고 이때 ‘게’형이 ‘이’형보다 자주 쓰인다면, 이는 이들이 기능상 동가임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기능상 동가라면 ‘이’형은 서술성이 없기에 파생부사이고 ‘게’형은 서술성이 있기에 부사형으로 분류해 온 그간의 분석에도 재고의 여지가 생긴다. 이들 사이에 서술성의 차이, 혹은 부사와 부사절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런 전면적인 넘나듦과 대체가 어떻게 가능하며, 대체 가능한 쌍에서 어느 하나에만 존재하는 서술성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상대화에서 ‘게’형에 대한 선호는 압도적이다. 실제 빈도를 확인해 보자. 다음은 〈모두의 말뭉치〉 중 일상대화 말뭉치에서 ‘이’ 부사와 ‘게’ 부사형의 빈도를 검색한 결과이다. 세종 형태분석 말뭉치에서 ‘게’ 부사형을 검색하고 50회 이상 출현하는 것만을 추린 후, 이를 다시 모두의 말뭉치에서 검색하였다. 괄호 안의 앞의 수치가 ‘이’형의 것이고, 뒤의 수치가 ‘게’형의 것이다.¹²

먼저, ‘이’ 부사가 《표준》에 등재되어 있는데도 실제 쓰인 예가 하나도 검색되지 않고, ‘게’형만 검색되는 단어들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형보다는 ‘게’형을 선호하는 경향은 충분히 짐작된다.

(12) 일상대화에서 ‘이’형이 검색되지 않는 것들

이상하게(0/383), 비슷하게(0/274),¹³ 시원하게(0/132), 따뜻하게(0/122), 심각하게(0/80), 화려하게(0/26), 단호하게(0/25), 강력하게(0/22), 밀접하게(0/22),

¹¹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중세국어의 부사로는 ‘물기, 불기, 느지, 구지, 고비, 조비, ᄇᆞᆫ리, 거츠리, 드프리, 어디리, 모디리, 덜이(短), 키, 어두이’ 등이 있다.

¹² 빈도수에 포함된 ‘게’형이 모두 ‘이’ 부사로 대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게 되다, 게 만들다, 게 생기다’ 등이 빈도수에 포함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 코퍼스에서 상위 빈도의 ‘게’형을 추출할 때는 이런 구성의 ‘게’는 제외하였지만 〈모두의 말뭉치〉에서는 이런 예들을 제외하지 못했다. 따라서 빈도수가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약점이 있다. 그러나 ‘게’형의 선호에 대한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¹³ 《표준》에서 ‘비슷이’는 ‘비교가 되는 대상과 어느 정도 일치되지만 다소 미흡한 면이 있게.’로 풀이된다. “자포자기가 된 꼴로 하소연 비슷이 뉘두리를 하곤 했다.”와 같은 예에서 쓰이는데, 일상대화에서는 “자랑 비슷하게” “허풍 비슷하게” 등으로 더 쓰인다.

풍부하게(0/16), 냉정하게(0/10), 느긋하게(0/10), 침착하게(0/10), 극명하게(0/8), 어색하게(0/8), 치밀하게(0/8), 민감하게(0/6), 성급하게(0/6), 불안하게(0/6), 신속하게(0/4), 집요하게(0/4), 공정하게(0/4), 다급하게(0/2), 요란하게(0/2), 명료하게(0/2)

다음은 위에 제시한, ‘이’ 부사가 있음에도 ‘게’형이 압도적으로 선호되는 경우의 예이다. 이들은 ‘이’형으로 바꾸어도 크게 의미 차이가 나지 않는다.

- (13) 가. 왜 잘 못 먹는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나. 속을 따뜻하게 풀어줄 수 있는 오텀이 정말 인기야.
 다. 한 손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걸어오십니다.
 라. 들어볼 생각 없다고 아무리 단호하게 말해도 소용없었다.

다음은 세종 코퍼스에서 ‘이’ 부사가 쓰인 예를 가져온 것인데, 위의 일상대화예와 비슷한 술어가 후행하는 것들이다. 후행 술어 때문에 ‘게’형이 선택된 것은 아님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 (14) 가. 처음에는 온 식구가 이상히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나. 네 가슴 따뜻이 데우던 온기 역시 사라졌다.
 다. 북한의 핵 문제를 심각히 인식하고 있다.
 라. 의탁할 수 없다면 단호히 거절했다.

다음은, ‘이’ 부사에 비해 ‘게’형이 (15)는 압도적으로 고빈도로 쓰이는 단어들이고, (16)은 이보다 빈도 차이가 적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쓰이는 단어들이다.

- (15) 친절하게(2/118), 간단하게(28/354), 편안하게(8/190), 차분하게(6/42), 급격하게(6/48), 성실하게(8/46), 완벽하게(8/72), 활발하게(14/72), 당당하게(6/64), 생생하게(6/30), 엄격하게(2/26), 선명하게(2/26), 소중하게(12/68), 막연하게(46/168), 뚜렷하게(9/42), 간략하게(2/18), 훌륭하게(2/10), 튼튼하게(2/8), 교묘하게(2/8), 단순하게(88/250)

- (16) 정확하게 (242/347), 철저하게(30/82), 명확하게(12/40), 적절하게(10/24), 과감하게(14/31), 절실하게(16/24), 철저하게(30/82)

이 중에서 빈도 차이가 열 배 이상 나는 ‘친절하게, 간단하게, 편안하게’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모두 ‘친절히, 간단히, 편안히’로 바꾸어도 의미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양상은 현대한국어 구어에서 ‘게’형이 얼마나 ‘이’형의 자리를 잠식했는지를 보이기에 충분하다.

- (17) 가.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나.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를 주문하고.
 다. 나중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을 원해서 가지고.

이와는 달리, ‘이’형이 고빈도로 쓰이는 단어들도 있다. 다음이 그런 단어이다. 마찬가지로 앞의 빈도가 ‘이’형의 것이다.

- (18) 솔직히(3908/123), 당연히(1166/35), 확실히(1134/156), 분명히(579/26), 완전
 히(587/14) 자세히(208/86), 충실히(26/6)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고빈도인 ‘솔직히, 당연히, 확실히, 분명히’는 ‘게’형과는 구별되는 용법이 있는 것들이다. ‘솔직히’는 ‘솔직히 말해’처럼 화행의 문장부사로 많이 쓰인다. (19가)가 그런 예인데, 이런 용법에서는 ‘게’형이 거의 쓰이지 않는다. 반면에 (19나)의 성분부사인 ‘솔직하게’ 자리에는 ‘솔직히’도 가능하다.

- (19) 가. {솔직히, *솔직하게}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나.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솔직히} 말하면 좋을 것 같아.

‘당연히, 확실히, 분명히’는 영어의 ‘certainly, evidently, definitely’가 그런 것처럼, 양태의 문장부사이다. 문장부사는 후속 명제가 부정문으로 바뀌어도 그 작용역에 들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아래 (20가)-(다)를 각각 부정문으로 바꾸어도, 문장부사는 모두 이들의 작용역 안에 들지 않는다. 즉 [당연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 [분명하지 않다]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 (20) 가. 당연히 닭고 싶은 사람은 아빠겠지.
 가’. 당연히 [닭고 싶은 사람은 아빠가 아니겠지].
 나. 확실히 보는 맛은 있겠다.
 나’. 확실히 [보는 맛은 없겠다].
 다. 분명히 난 거기에 갔다.
 다’. 분명히 [난 거기에 가지 않았다].

반면에, ‘당연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는 뒤의 명제 전체가 아니라 후행하는 동사구만을 수식한다. 따라서 이를 부정문으로 만들면 부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즉 아래 (21가)-(다)은 각각 ‘당연시하지 않았다, 불분명하게 표명했다, 불확실하게 짚다’로 해석된다.

- (21) 가. 도움 받는 것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 도움 받는 것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을 했다.
 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을 하지 않았다].
 다. 계획을 확실하게 짜고 가보고 싶긴 해.
 다’. 계획을 [확실하게 짜지 않고] 가보고 싶긴 해.

이런 차이가 있기에 ‘당연히, 확실히, 분명히’와 같은 양태부사는, 성분부사로 쓰이는 ‘게’형과는 대체되기 어렵다.

문장부사가 아니면서 압도적으로 고빈도로 쓰이는 ‘완전히’는, ‘완전하게’와의 의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완전히’는 영어의 ‘completely’처럼 뒤의 말을 강조함으로써 정도를 드러낸다. 그래서 ‘완전히 예쁘다, 완전히 다르다’처럼 쓰이고 이런 환경에서 ‘*완전하게 예쁘다, *완전하게 다르다’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 다음 (22가)의 ‘완전히’와 (22나)의 ‘완전하게’도 서로 바꿔 쓰면 의미가 달라지거나 어색해진다.

- (22) 가. 호출을 하셨는데 저희가 {완전히, *완전하게} 무시했죠.
 나. 부족한 사람도 사랑은 {완전하게, *완전히}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경향과는 달리, 의미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형이 높은 빈도로 쓰이는 것도 있다. 아래 (23)의 ‘자세히, 충실히’가 그런 예로, ‘게’형으로 바꾸어도 의미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이’형은 별로 많지 않다.

- (23) 가. 탈퇴를 원하는데 어떻게 될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나. 꿈이 어떤 건지는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은 것 같아.
 다. 하루하루를 조금 더 충실히 살아가고 싶어서.
 라. 재미있고 조금 충실하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보아도 ‘게’형이 ‘이’형을 얼마나 대체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짐작된다. 실제 구어에서는 양태부사나 화행부사처럼 특유의 용법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게’형이 장악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장부사로도 잘 안 쓰이는 ‘게’형도 ‘도’가 붙으면, 문장부사로 흔히 쓰인다. 즉 ‘게’형이 문장부사의 영역으로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꾼 (24가'), (24나'), (24다')를 보면 '-게도'는 부정의 작용역 안에 들지 않는다.

- (24) 가. 놀랍게도 검은색 백조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견되었다.
 가'. 놀랍게도 [검은색 백조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나. 슬프게도 이번 시험은 떨어졌다.
 나'. 슬프게도 [이번 시험은 떨어지지 않았다].
 다. 운 좋게도 좋은 여행 벚을 만났어.
 다'. 운 좋게도 [나쁜 여행 벚을 만나지 않았어]

이제, 남은 질문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이들이 수의적으로 교체되고 일상대화에서는 주로 '게'형이 쓰인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이'형과 '게'형이 어떤 환경에서는 완전히 기능이 같으며, 따라서 이런 경우의 '게'형에 대해서도 '이'형과는 달리 서술성을 가진다고 전제할 이유가 없음을 시사한다. 적어도 서술성 여부가 둘 다 중요하지 않거나 둘 다 중요하다고 해야, 이런 넘나들이 설명된다. (3.4에서 다룸)

둘째, 상호 교체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 즉, '이'형과 '게'형 간의 의미 차이가 있다는 것이, 하나는 접사이고 다른 하나는 어미로 봐야 할 근거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 한국어의 어미는 동일 범주에 두 개 이상의 성원을 가지는 일이 흔하다. 명사형 어미도 '음'과 '기'가 있으며, 관형사형 어미도 '은'과 '을'이 있다. 이들은 서실법(realis)과 서상법(irrealis)의 차이로, 의미에 따라 복수 성원을 가지는 경우이다.

이와는 달리 역사적 변화에 의해 복수 성원이 구성되기도 하는데, '이'와 '게'가 그런 경우이다. 예전에 생산성을 가졌으나 이후 쇠퇴 일로를 겪은 어미와, 이 과정에서 새로이 분포를 넓혀간 어미 사이의 공존인 것이다. 명사형 어미 '음, 기'가 현대한국어 특히 구어에서는 '은 것, 을 것'으로 대체되어 쓰이는 것도 비슷한 현상이다(문숙영 2017 참조). 후대의 어미가 새롭게 분포를 확장하면서, 그 전대에 쓰이던 어미의 분포가 줄거나 서로 분포가 겹치는 일은, 즉 어미 간 세대교체나 공존은 한국어 문법에서는 낯선 일이 아니다.

3.4. 서술성 여부

'이' 파생부사는 주어를 상정하기 어렵지만, '게' 부사형은 주어가 상정되는 것으로 기술되어 왔다. '이' 부사는 어휘화되었기 때문에 서술성이 유지되지 않고, '게' 부사형은 용언의 모양 바꿈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술성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송철의(1992: 261-262)에서는 ‘게’ 부사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이에 대한 주어가 상정될 수 없을 때라고 하였다. (25가)는 ‘영이’나 ‘잘못’이 ‘마음속 깊게’의 주어로 상정될 수 없고, (25나)는 ‘비행기’가 ‘하늘 높게’의 주어로 상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 (25) 가. 영이가 자기의 잘못을 {마음속 깊이, *마음속 깊게} 뉘우쳤다.
나. 비행기가 {하늘 높이, *하늘 높게} 떠 있다.

그러나 ‘게’ 부사형이라고 해서 주어 상정이 늘 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음의 예는 주어의 상정이 꽤 까다롭다.

- (26) 가. 석훈은 진우의 어깨를 가볍게 툭 건드렸다.
나. 공포로 수혜의 가슴은 세차게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다. “순두부요.” 수혜는 메뉴판을 한번 쳐다보는 척하며 짧게 말했다.

(26가)의 ‘가볍게’의 주어는 ‘석훈’도 ‘진우의 어깨’도 아니다. 굳이 찾자면 ‘석훈의 건드림의 강도’ 정도가 될 것이다. (26나)의 ‘세차게’의 주어는 ‘수혜의 가슴’이기 어렵고, ‘가슴이 뛰는 강도’ 정도가 될 것이다. (26다)의 ‘짧게’의 주어도 ‘수혜’가 아니며, ‘수혜의 주문, 주문하는 말’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럼 찾아낸 주어들을 ‘게’형 앞에 드러내 보자. 아마도 주어 상정 가능성이란 이런 방식의 주어 실현을 ‘이’형은 불허하지만, ‘게’형은 허용한다는 의미일 것이다.¹⁴ (27가), (27나)는 흔히 쓰이지는 않지만 허용할 정도는 되고 (27다)는 꽤 어색하다. 반면에 ‘이’형은 (28)에서 보듯이 주어가 드러나면 매우 어색해진다.

- (27) 가. 석훈은 진우의 어깨를 [강도가 가볍게] 툭 건드렸다.
나. 두려움과 공포로 수혜의 가슴은 [뛰는 정도가 세차게]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다. “순두부요.” 수혜는 메뉴판을 한번 쳐다보는 척하며 [²주문/말이 짧게] 말했다.

- (28) 가. 석훈은 진우의 어깨를 {강도가 가볍게, *강도가 가벼이} 툭 건드렸다.
나. 할머니는 늘 {먹을 것이 충분하게, *먹을 것이 충분히} 준비해 주셨어.

¹⁴ 구문에 주어가 실현될 수 있느냐 여부가 아니라, 기저에 상정할 수 있는가 여부가 아닌가를 물을 수 있다. 만약 후자라면 앞의 (25)에서 [마음속 깊다]나 [하늘 높다]는 표면의 어미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기저에는 주어를 상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면 서술성의 검증 도구가 될 수 없다. 사실 서술성 검증의 문제는 논의마다 그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것이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그런데 ‘게’형 앞에서도 이런 식의 주어 표현이 어려울 때가 많다. 아래 (29가, 나)는 무엇이 가능한 주어인지부터 분명하지 않은데, 일단 가능한 대로 넣어 보면 어색해진다. 반면에 (29다)는 ‘이’형 앞인데도 주어의 상정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추가한 ‘내가’는 ‘편안히’가 아닌 ‘쓰다’의 주어이며 따라서 ‘편안히’가 주어를 취한 예로 볼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편안하게’에도 해당되는 사안이다. 즉 (29다)의 주어 상정 가능성은 ‘이’형과 ‘게’형 둘 다 가능하거나 둘 다 불가능한 예가 된다. 이처럼 서술성 여부는 단순히 ‘이’나 ‘게’냐의 문제로 갈리지 않는다.

- (29) 가.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를 주문하고.
 → [[?]먹는 방식이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나. 왜 잘 못 먹는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 [^{*}못 먹는 것이/^{*}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다. 시간을 편안하게/편안히 쓸 수 있는 직업을 원합니다.
 → 시간을 [내가 편안하게/내가 편안히] 쓸 수 있는 직업을 원합니다.

이상의 양상들은 근본적으로 왜 주어의 가능성이나 서술성 여부가 ‘이’형과 ‘게’형의 차이에 이토록 중요하게 다루어지는가를 묻게 한다.¹⁵ 주어의 상정 가능성과 무관하게, 문장에서의 기능이나 의미적 기여는 결코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늘 서술성이 전제되어 온 ‘게’형과는 달리, ‘이’형은 서술성을 가질 수 있는가 자체가 쟁점이 되어 왔다. 논항을 취하는 ‘달리, 없이’ 등이 그 대상인데, 어미로 보는 입장에서는 형용사 어기가 논항을 취하는 것으로, 파생접사로 보는 입장에서는 ‘와 함께’처럼 부사가 논항을 취한 것으로 보는 등 입장이 갈려 왔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보든, 접사/어미 관정예의 직접적인 증거는 못 된다. ‘달리’가 부사라고 해서 여기에 결합한 ‘이’가 접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굳어진 어형 외에도, 형용사 어기가 논항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예들이 있다. 우순조(2001: 142-144)는 ‘이’를 어미로 볼 수 있는 근거로, 내부 논항을 취하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든다.

- (30) 가. 일꾼들은 [식욕도 왕성히] 음식들을 몽땅 먹어치웠다.
 나. 선수들은 [사기도 드높이] 교가를 부르며 트랙을 돌았다.

¹⁵ ‘게도’에 대해서도 주어 논항을 상정할 수 있다고 보아온 논의가 많은 데 대해, 실제로 논항이 쓰인 예가 있는지 검색해 보았다. 대표적으로 ‘놀랍게도’를 살펴보았는데, 검색된 96개의 문례 중에서, 절 첫머리에 위치하는 것이 69였다. 모두 접속사, 연결어미나 이에 상당하는 구성 다음에 ‘놀랍게도’가 쓰인 예들이다. 나머지 예들도 대개 문장의 주제인 ‘은/는’ 성분 다음에 놓인 것들이었다. 즉 ‘놀랍게도’의 논항이 선행하는 예는 별로 없었다. (문숙영 2019)

(30가)의 ‘식욕’이나 (30나)의 ‘사기’가 후행 형용사의 내부 논항이라는 점은, 이들이 이동시 분리되지 못하고 함께 움직여야 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식욕도] 일꾼들은 [왕성히] 음식들을”처럼은 쓰일 수 없고 “[식욕도 왕성히] 일꾼들은 음식들을”처럼 쓰이는 것이다. 이런 구성으로 쓰일 수 있는 ‘X-이’가 제한된 것도 아니므로, 이들은 ‘이’형이 서술성을 보이는 예라 할 만하다.¹⁶

이 밖에 ‘이’를 어미로 볼 만한 근거로, 우순조(2001: 148-149)에서는 ‘이’ 부사가 필수 성분으로 쓰이는 예를 들면서, 이런 양상은 장형 사동인 ‘게 하다’ 구성에 비견될 만하고, 이는 ‘이’와 ‘게’의 등가성을 보여주는 한 측면이라고 하였다. 아래가 그 중 일부인데, 이들 예에서 ‘이’ 부사는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 (31) 가. 찬성인지 반대인지 태도를 분명히 해라.
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다. 경계를 철저히 하라.

‘이’형이 ‘하다’ 앞에서 필수적인 경우는 아주 많다. 이 중 일부를, ‘이’형이 필요한 구문임이 드러나도록 목적어를 동반하여 제시한다.

- (32) (사람을) 소중히 하다, (서비스를) 소홀히 하다, (관계를) 돈독히 하다, 기반을 공고히 하다, (마음을) 고요히 하다, (지적 재산을) 풍부히 하다, (속을) 튼튼히 하다, (나눔을) 똑같이 하다, (섬김을) 극진히 하다, (경비를) 굳건히 하다, (얼굴을) 단정히 하다, (이론을) 정교히 하다, (박스에 뚜껑을) 단단히 하다, (사실을) 명백히 하다, (노동자를) 똑바로 하다, (자세를) 새로이 하다, (토지를) 균등히 하다, (국방을) 튼튼히 하다, (구실을) 툭툭히 하다, (형식은) 간단히 하다, (입안을) 청결히 하다, (머리를) 가지런히 하다, (지우기를) 철저히 하다, (모든 이론을) 가지런히 하다, (신뢰를) 두터이 하다 등

이들 구성은 ‘이’형이 없이는 문장이 성립하지 않으며, ‘이’형은 술어의 어휘 의미의 핵심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를 소홀히 했다”와 같은 예에서, 술어는 ‘소홀히 하다’이며 핵심적 의미는 ‘소홀히’에 있다. 합성동사가 아닌지를 물을 수 있고, 실제로 ‘가까이하다, 게을리하다’처럼 사전에 등재된 단어도 일부 있으나, 이 같은 구성을 전부 합성동사로 처리하기는 어렵다. ‘이’형 자리에 올 수 있는

¹⁶ 김건희(2006: 323)에서는 “피해자는 (표정도) 차분히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였다.”나 “신입사원은 보고를 마치고 (마음도) 홀가분히 회의실을 나왔다.”와 같은 예에서, ‘이’ 부사 앞의 내부 논항은 수의적인 성격을 보이므로, 이런 성격의 내부 논항을 취한다고 해서 어미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수의적 성분이라고 해서 ‘이’형의 성분이 아닌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 성분의 수의성이 ‘이’의 어미적 지위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

어휘에 별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구성의 존재는 ‘이’형이 서술성을 어느 정도는 간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간 ‘게’형은 서술성이 있고 ‘이’형은 없음을 강조해 온 데는, 서술성이 있으면 용언에 어미가 결합한 형태이고, 서술성이 없으면 파생부사로 볼 수 있다는 전제가 작용해 왔다. 그러나 서술성이 없다고 해서 결합된 형식이 접사임을 보증하지 않는다. 오래 전에 어미가 결합된 형태가 어휘화했을 가능성도 있고, 주어 상정이 불가능했던 ‘게’형처럼 어미가 결합되었지만 서술성을 확인할 수 없는 예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형과 자유로이 교체되는 ‘게’형은 부사의 위상으로 쓰인 것이고, 이런 예들에서 서술성을 찾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주어 상정 가능성은, ‘게’가 공식적으로 왕성한 결합력을 보이는 어미이나 아니냐를 드러내는 것일 뿐, 어미/접사의 구분의 기제가 아니다. 사실, 어미/접사의 구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란은, 파생을 겸하는 굴절을 인정하면 상당 부분은 해소되는 것들이다. 본고의 근원적인 의문은, 부사형어미가 단어형성에 참여한다고 보고, ‘이’나 ‘게’가 서술성이 아주 없는 부사에서부터 내부 논항을 온전히 취하는 부사절에까지 쓰일 수 있다고 보면 안 되는가 하는 데 있다. 본고는 한국어의 전성어미는 어휘소의 형성부터 절을 구성하는 데까지 쓰이는 어미로 이해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보고 있다.

4. 단어부류의 변화를 동반하는 굴절

본고는 지금까지 ‘이’형이나 ‘게’형이 접사가 결합한 파생보다는 어미가 결합한 굴절에 가까움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게’형이 ‘이’형을 대체하고 이런 경우 주어의 상정도 어렵다는 점을 들어, 두 어형이 동일하게 부사의 위상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형용사가 문장에서 부사로 쓰이는 것은 파생적 속성이고, 결합 어기의 제약이 비교적 적고 의미가 일정한 것은 굴절적 속성이다. 즉 이들을 단어부류의 변화 즉, 파생을 동반하는 굴절로 본 셈이다.

굴절과 파생을 동시에 인정하는 이런 태도는 편하게 둘 다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단어부류의 변화를 동반하는 굴절은 세계 여러 언어에서 발견된다. 이 절에서는 이런 굴절의 종류를 소개하고, 단어의 직접구성요소 중 의존적인 요소는 모두 접사라는 이름을 부여해 온 한국어의 문법 기술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4.1. 단어부류가 변하는 굴절

Haspelmath(1996)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파생만이 단어부류를 바꾼다는 믿음은

‘신화’라고 하였다. 굴절이지만 단어부류를 바꾸는 예가, 많은 언어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견된다는 것이다.¹⁷ (33가)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독일어 분사의 예이고, (33나)는 유럽에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Lezgian의 동명사(verbal noun, 혹은 action nominals)의 예로 ‘masdar’라고도 불리는 것이다. ‘[네가 일찍 일어난 것은] 우리를 놀라게 했다’ 의미의 문장으로, 주어 자리에 명사 형태의 절이 온 예이다.

(33) 가. $V \rightarrow \text{Adj}$ (participle)

German

der im Wald laut sing_V-ende_{Adj} Wanderer
 the in:the forest loud sing-PTCP hiker
 ‘the hiker (who is) singing loud in the forest’

나. $V \rightarrow N$ (masdar)

Lezgian (Nakh-Daghestanian; Haspelmath 1993: 153)

wun fad qarağ_V-un_N-i čun tažub iji-zwa
 [you:ABS early get.up-MASD-ERG] we:ABS surprise do-IMPF
 ‘That you are getting up early surprises us.’

이들은 어기의 원래 품사대호가 아니라 (33가)는 동사가 형용사처럼 (33나)는 동사가 명사처럼 쓰이는 예이다.¹⁸ 그리고 이들 독일어의 분사나 Lezgian의 ‘masdar’는 동사에 두루 결합되며, 형용사화하거나 명사화한다는 의미 외에 특수한 의미를 추가하지 않는다. 즉 파생과 굴절에 대한 그의 정의에 따르면 굴절적이다.

그런데 이들은 단어부류도 바뀐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형태적으로, 독일어 분사는 형용사와 동일한 굴절 패러다임을 보이고, Lezgian의 ‘masdar’도 이 언어의 다른 명사들처럼 16개의 격을 취한다. 단어부류가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속성은 설명할 길이 없다. 통사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독일어의 분사는 늘 형용사처럼 수식어 앞에 놓인다. 그리고 Lezgian의 ‘masdar’는 다른 명사들처럼 모든 논항 자리에 나타날 수 있다.

이상의 근거들로 Haspelmath는 이들은 굴절적이면서 단어부류를 바꾸는 형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와 비슷한, 그러나 아주 새로운 예들도 이어 제시한다. (34가)는 영어에서 형용사에 ‘ly’가 붙어 부사로 쓰이는 예이고 (34나)는

¹⁷ 지면의 제약으로 두어 개의 예만 가져와 소개한다.

¹⁸ 언어학자들은 일찍부터 이런 예들을 알고 있었던 듯하지만, 부류 전환 형식은 파생이라는 신화는 계속 이어졌다고 하였다.

Lezgian에서 형용사에 접사가 붙어 명사로 쓰이는 예이다. (34다)는 Kannada에서 동사에 접사가 붙어 부동사로 쓰이는 예이다. 이들은 모두 생산적이고 큰 예외 없이 규칙적으로 만들어진다.

(34) 가. Adj → Adv (adjectival adverb)

English

She sings beautiful_{Adj}-ly_{Adv}

나. Adj → N (substantivized adjective)

Lezgian (cf. Haspelmath 1993: 110-112)

Za-z č'exi_{Adj}-di_N k'an-zawa.

I-DAT big-SUBST:ABS want-IMP

'I want a big one.'

다. V → Adv (converb, cf. Haspelmath and König (eds.) 1995)

Kannada (Dravidian; Sridhar 1990: 73)

Yaar-ig-uu heel_V-ade_{Adv} eke bande?

who-DAT-INDEF say-NEG.CONV why come:PRET:2SG

'Why did you come without telling anyone?'

Haspelmath는 이런 예들은 원형적인 파생보다는 굴절에 가까우며, 이처럼 굴절/파생의 구분은 절대적이지 않고 정도성과 흐릿한 경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전에 Stephany(1982), Bybee(1985), Plank(1994) 등에서 주장한 것처럼, 분명한 굴절에서부터 분명한 파생까지 중간지점을 가지는 연속체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단어부류의 변화를 동반하는 굴절에 붙이는 적절한 술어가, 한국어에는 이미 존재한다. 전성어미가 그것이다. 아주 일찍부터 한국어 문법은 전성어미의 존재를 인정해 왔다. 그러나 전성어미의 역할에 대해서는 해당 문례에 한해 일시적으로 다른 단어부류로 기능하게 해주는 장치일 뿐, 품사의 변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적 과정으로 간주해 왔다. 그래서 '이, 게, 음, 기'와 같은 전성어미와 형태가 동일한 파생접사를 구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태적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

4.2. 한국어의 특수성

한국어는 단어부류의 변화를 동반하는 굴절, 즉 전성어미의 활약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언어이다. 한국어는 교착어이면서 동사성 형용사를 가졌다. 따라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이려면 부사형어미가 결합하고, 영어의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려면 관형사형어미가 결합하며, 용언을 명사로 쓰이게 하려면 명사형어미가 결합하는 것이 가장 손쉽다. 이런 점에서 부사파생접사 ‘이’, 명사파생접사 ‘음, 기’가 각각 당대의 부사형어미 및 명사형어미와 형태가 같다는 점은 우연한 것이기 어렵다.

15세기 부사파생접미사는 꽤 다양한데,¹⁹ 이 중에서 형용사에 붙어 부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이’가 거의 유일한 편이다.²⁰ 또한 명사파생접미사도 아주 다양하지만,²¹ 용언을 명사로 만드는 데 주로 쓰이는 것은 ‘음’과 ‘기’이다.²² 이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의 형태가 아주 다양한 영어와 비교하면, 상당히 다른 점이다.

- (35) believe-belief, move-movement, feel-feeling, laugh-laughter,
walk-walking, arrive-arrival, think-thought 등

‘이’나 ‘음, 기’는 단어부류를 바꾸는 문법적 기능 외에 추가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도 파생접사와는 구별되는 점이다. 대개의 파생접사들은 별도의 의미를 추가한다.²³ 예를 들어 ‘복스럽다’의 ‘스럽다’는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지만 ‘그런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한다. 또한 ‘방싯대다’의 ‘대다’는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이지만 ‘그런 상태가 잇따라 계속됨’의 뜻을 더한다.

혹시 ‘굳이, 길이’와 같이 형용사 어기의 의미와 떨어진 ‘이’형을 파생부사로 보아온 것처럼, ‘음’과 ‘기’ 명사형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들은 파생명사로 분리해야 하지 않는가를 물을 수 있다. 예컨대 ‘얼다’는 액체 상태의 물질이 찬 기운에 의해 고체 상태의 물질로 굳어지는 사건을 가리키지만, ‘얼음’은 얼어서 굳어진 물질, 즉 사건의 결과물을 가리키므로, ‘얼음’은 명사로 따로 분류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¹⁹ 부사파생접사의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곰, 내, 더, 라, 로, 록, 리, 마, 막, 사리, 소/소, 인/오, 아/어, 아스로, 애1, 애2, 오/우(호/후), 오마, 옥, 으라, 이(철어성 상정어→부사), 이2(형용사→부사), 히, 췌’(구본관 1996: 191)

²⁰ ‘자주(잣+우), 너무(넙+우), 도로(돌+오)’ 등에 쓰이는 ‘오/우’가 있다. 이 ‘오/우’가 결합한 부사는 수가 많지 않은데, 결합어기에 대해서는 주로 동사에 결합한다는 견해와(구본관 1996), 동사의 결합이 수적으로 형용사보다 약간 우세하다는 견해(이동석 2015)가 있다. 이동석(2015: 130-131)에서는 ‘-오-’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어미처럼 기능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²¹ 명사파생접미사 (일부분만 제시함): 가(爵), 간(間), 개/개, 경, 콧, 그리, 기1(부사→명사), 기2(동사→명사), 낫, 내, 니, 님, (중략) 익/의1(명사→명사), 익/의2(형용사→명사), 아괴, 아지, -어리1(명사→명사), 어리2(동사→명사), 이1(명사→명사), 이2(부사→명사), 억, 엄 (이하 생략) 등 (구본관 1996: 52)

²² 이 외에 ‘이, 익/의’가 있는데, ‘익/의’는 ‘길이, 높이’ 등 형용사에서 척도명사를 만들어내는 데 쓰인다.

²³ 물론, 피동접미사나 사동접미사처럼 범주 전환의 기능만 주로 가지는 접사도 있기는 하다.

‘이’ 부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런 종류에 쓰인 ‘음’, ‘기’도 파생접사가 아니라고 할 근거도 없지만, 어미가 아니라고 할 근거도 없다. 다만, 어미일 가능성을 지지할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있는데 첫째, 명사형이라는 문법적 의미만 추가할 뿐 여기에서 의미가 그리 달라지지 않은 ‘음’, ‘기’형이 훨씬 많다는 점 둘째, 대부분의 ‘음’, ‘기’형은 개체와 사건/행위, 어떤 경우는 명제까지 모두 지시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일례로 ‘물음, 비웃음, 울음, 달리기’만 보아도 국어사전의 의미기술은 ‘여기가 지시하는 행위와 그 행위와 관련된 개체’가 모두 제시된다.

(36) 가. 물음. 묻는 일. 또는 묻는 말.

나. 비웃음. 흉을 보듯이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기는 일. 또는 그렇게 웃는 웃음.

다. 울음. 우는 일. 또는 그런 소리

라. 달리기. 명사. 달음질하는 일. 또는 달리기 시험.

따라서 이들이 쓰인 문례에서는 사건/행위와 개체 해석 간에 모호성을 띠는 일이 많다. (37가)의 ‘울음’은 우는 행위로도 해석되고 우는 소리로도 해석된다. (나)의 ‘비웃음’도 남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은 사건일 수도 있고, 그런 말과 웃음일 수도 있다. 이 외에, 명사가 지시하는 바가 행위인지 명제인지 사이에서 모호성을 띠는 경우도 많다. (다)의 ‘당당함’은 당당한 행위와 태도일 수도, ‘당당하다는 것’이라는 명제일 수도 있다. 이들에 쓰인 ‘음’이 각각 다르다면, 이런 중의성과 모호성은 설명하기 어렵다.

(37) 가. 슬프지만 울음을 참아보련다.

나. 두 번 다시 비웃음을 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다. 횡포는 남에게 상처를 입혀야 직성이 풀리는 폭력하고 통하지만, 당당함이란 귀한 것, 아름다운 것, 힘이 약한 것을 보호하려는 용기와 통한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형이든 ‘게’형이든 서술성이 없는데도 어미가 결합한 형태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앞에서 ‘이’형을 대체하면서 주어를 상정할 수 없었던 ‘게’형은 파생부사인가 하는 문제이다. 본고의 입장에서 이때의 ‘게’는 접사가 아니며 따라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파생부사가 아니다. 이들은 한국어의 단어부류에서 부사 범주를 구성하는 성원이기는 하나, 어휘부에 저장된 형태로서가 아니라 공시적으로 어미 결합에 의해 만들어지고 쓰인 후에는 잊히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는 전통적으로 부사형이라고 불려온 속성과도 다르다. 부사형은 어기의 서술성을 유지하며 그 품사는 여전히 형용사라는 전제를 가지지만,

본고는 서술성과 기존 품사 유지라는 조건을 전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어는 영어와는 달리 형용사가 단독으로 서술어로 쓰인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형은 관계절로 분석되고, ‘빨간 꽃’과 같은 예에서의 ‘빨간’은 서술성을 간직한 채 모양만 바꾼 형태로 기술되어 왔다. 반면에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왔으면 한다”와 같은 예에서의 ‘다른(other)’은 ‘다르다(be different)’와는 의미가 달라졌기에, 굳어진 관형사로서 서술성이 없는 형태로 분류된다. 요컨대, 한국어는 서술성 여부가 어휘화와 절을 가르는 핵심이 되어 온 것이다. 이 때문에 어미임이 너무도 분명한 ‘게’형은 ‘이’형 자리에 대신 쓰인다 하더라도, 절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이’형을 대신하는 ‘게’형은 서술성을 겨냥해서 쓰인 것이 아니다. 그저 ‘이’형이 하던 것처럼 부사의 기능을 위해 쓰인 것이다. 사실, 서술성은 부사 기능의 본령일 수가 없다. 단어부류의 변화는 일차적으로 어기의 원래 기능과는 상관없이 바뀐 단어부류로 기능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쉽게 말해, 영어에서 ‘ly’부사가 어기인 형용사의 기능과 무관한 것처럼, 한국어의 ‘이’형이나 ‘게’형 부사도 어기인 동사성 형용사의 기능과는 무관하다. 그동안은 통사적 환경에 맞는 문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형태 변화라는 사실보다, 결합 어기가 서술성을 가질 수 있는 부류라는 사실을 필요 이상으로 의식해 온 듯하다. 동사성 형용사는 단독으로 술어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형용사가 명사 수식어나 동사 수식어로 쓰일 때도 그 술어성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게’형은 그저 부사의 자격으로 쓰인 것부터 주어를 취하는 절의 자격으로 쓰인 것까지 다양할 수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고, 실제 양상도 그러하다. 부사나 부사형이나, 명사나 명사형이나 하는 구분은, 어휘화된 것을 골라내는 작업 외에는 크게 실리가 있어 보이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오랫동안 쓰여 와서 부사나 명사로 굳어진 어휘들을 제외하면, 어휘화와 절 사이에 정도 차이를 보이는 다양한 양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²⁴ 계량적 연구가, 명사와 명사형, 부사와 부사형을 구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이런 현실을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현대한국어 명사형 어휘만 보더라도, 명사성과 동사성 사이에서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인다. 일례로, 아래의 ‘음’ 명사형은 사전의 표제어가 아닌 것들이다. (38가)의 ‘폐똥음’은 지시관형사인 ‘그’의 수식을 받고 있다. (38나)의 ‘붙잡음’은 ‘어느 누구의’라는 ‘의’ 성분의 수식을 받는다. 이는 ‘어느 누구’가 ‘붙잡-’의 주어로 해석되는, 일명 주어적 속격으로도 볼 만한 예이다. (38다)는 ‘살아있음’이

²⁴ 그래서 중세한국어의 ‘이’가 접사인지 어미인지 혹은 두 종류가 다 있는지, 마찬가지로 ‘음’과 ‘기’가 접사와 어미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같은 것인지 등과 관련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정확히는 알기 어렵다는 기술도 있어 왔다.

‘자신이’라는 주어를 취하고 있으며 (38라)는 ‘알아들음’이 ‘말을’이라는 목적어를 취하고 있다.

- (38) 가. 그 공간을 꿰뚫는 잡음은 바로 그 꿰뚫음 속에 체계에 대한 전복력을 가진다.
 나. 전 재산을 투자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어느 누구의 붙잡음도 뿌리치리라.
 다. 진우는 새삼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라. 그가 이탈리아말로 내 질문에 계속 답하는 것으로 보아, 내 말을 알아들음은 분명했다.

위의 명사형들 중에서 (38가), (나)는 (38다), (라)보다 명사적이다.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다), (라)는 (가), (나)보다 동사적이다. 자신의 논항이 주격과 목적격으로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와 (나)를 비교하면, (가)가 더 명사적이다. 명사들은, 주어로 해석되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것보다 지시관형사의 수식을 받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나)는 주격을 그대로 취한 (다)에 비하면 더 명사적이고 덜 동사적이다. 이런 식으로 개별 문례에 따라, 명사성과 동사성의 정도 차이를 보이는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형태만을 보고 서술성의 간직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부사나 부사형이나 명사나 명사형이나 하는 구분에 그토록 집중해 온 데는, 조사나 어미는 단어형성의 일원으로 끌어들이기 어려웠던 사정도 있다. 대표적으로 ‘진실로’의 ‘로’는 조사임이 분명하고²⁵ 여러 논의에서 통사적 구성의 단어화로 기술한 바 있는데도, 학교문법에서는 여전히 접사로 분석되고 있다. 단어의 직접구성요소 중에서 의존적인 요소에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접사’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굴절어인 유럽어 중심으로 문법 기술이 이루어져 온 데서 비롯된다. 유럽어의 전통에서는 의존적인 형식에 붙일 이름이 접사(suffix, affix)나 첨사(particle) 외에는 없다. 이에 한국어의 조사나 어미도 모두 영어로는 첨사나 접사로 불러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파생을 겸하는 전성어미가 있고 조사나 어미가 단어형성에 참여할 수 있음이 적극적으로 인정됨으로써, 의존적 요소에 자동적으로 ‘접사’라는 이름을 주어진 전통도 바뀔 필요가 있다.

²⁵ 부사 중에서 명사에 조사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상당수는, 부사격조사를 취한 형태들인데, 이는 우연한 일로만 보기 어렵다. 다른 의미를 추가하지 않고 부사로 기능하게 해 주는 형식으로는, 부사격조사가 최적의 수단이다. 이에 해당되는 예로는 ‘기왕에, 한숨에, 단번에, 단김에, 대번에, 뜻밖에, 한숨에, 대대로, 단번에, 대체로, 의외로, 진짜로, 참말로, 진실로, 때때로, 억지로, 통으로, 홀으로’ 등이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부사파생접사 ‘이’, 부사형어미 ‘게’의 결합은 단어부류의 변화를 동반하는 굴절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굳이 접사의 자격을 주지 않고 어미의 자격으로도 단어형성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상당수의 형용사에 결합한다. 즉 다른 파생접사에 비해 결합제약이 없는 편이다. 또한 ‘이’는 파생하는 의미가 ‘형용사와 같은 방식으로’ ‘형용사와 같은 정도로’로 비교적 일정하다. ‘게’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형용사 어기에 결합되며 개체특이적인 의미가 추가되지 않는다. ‘게’형은 의미 차이 없이 ‘이’형과 수의적으로 교체하며, 이런 경우 특별히 서술성을 가진다고 볼 이유도 없다.

동사성 형용사를 가지는 한국어는 형용사에서 부사를 도출하는 데 어미가 동원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이’나 ‘게’는 명사형어미 ‘음, 기’와 더불어 단어부류의 변화를 동반하는 어미라고 할 만하며, 따라서 전성어미라는 명명이 본질에 가장 부합한다. 이들 전성어미는 어휘소인 부사나 명사에서부터 논항을 갖춘 부사절과 명사절에까지 두루 쓰이는 것이 특징이다.

본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이 글은 ‘이’형이나 ‘게’형이 부사라는 것인가, 부사형이라는 것인가. 원칙적으로 어느 쪽이든 크게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한국어는 형용사 어기에 부사형어미가 결합한 형태가 부사로 쓰이며, 이들 형태는 어휘에 따라 통째로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고, 공시적으로 어기에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산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일례로 ‘바쁘게’가 쓰였다고 해서 언제나 [누가 바쁘다]와 같은 서술성을 전제해서는 안 되며, ‘이’형이 쓰이면 단문이고 ‘게’형이 쓰이면 복문이라는 기계적인 분류도 지양되어야 한다.

둘째, 공시적으로, 특히 해당 문례에 한해 부사로 쓰이는 어형을 단어형성 혹은 단어부류의 변화라는 술어로 표현해도 되는가. 단어형성은 어형이 만들어지면 어휘부에 저장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통시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어휘부의 저장 여부로 판단한다면 ‘게’형은 단어형성에서 제외되기 쉽다. 그러나 부사는 엄연히 단어부류의 중요한 일원이고, 한국어의 부사는 형용사를 어기로 하는 경우 어휘부에 저장되는 방식이 아니라 공시적으로 어미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므로, 이들 어형을 단어형성에서 제외할 명분은 없다. 한국어는 어휘부의 저장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단어형성을 논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언어이다.

셋째, 부사형어미가 부사의 형성에 동원된다는 이 글의 주장은, 일부 논의에서 ‘진실로’나 ‘갈수록’ 등에 대해 통사적 구성이 단어화한 것으로 본 것과 같은 개념인가. 만약 실제 문장에서 쓰이던 형태가 그대로 단어로 굳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본고의 입장과 조금 다르다. 본고의 ‘파생도 겸하는 굴절’의 개념은 문장에

쓰여야 하는 선평정 없이, 전성어미는 언제든 부사나 명사를 (일시적으로) 만드는데 동원된다고 보는 데 바탕을 둔다.

마지막으로, 이 글이 중세한국어를 비롯해 부사에 쓰인 모든 ‘이’나 ‘히’, ‘음’과 ‘기’가 모두 어미이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두어야 할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선불리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탓이다. 게다가 이미 굳어진 부사형에 유추하여 새로운 부사가 만들어지는 일을 배제할 수 없어, 개별 어휘에서의 접사/어미 판별은 더욱 속단할 수 없다. 이 글은 한국어의 경우 어미나 조사가 단어형성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단어형성의 의존적 요소에 어미를 일단 배제하고 접사를 우선 고려하는 방식을 고수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Booij, Geert, E. 2006. Inflection and Derivation, *Encyclopedia of Language & Linguistics*, vol. 5, 654-661.
- Bybee, J. (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Amsterdam: Benjamins.
- Choi, Ung-Hwan. 2003. “Grammatical Characteristics of ‘-i’ as an Adverbial Ending in Modern Korean,” *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27, 365-384. [최웅환. 2003. “현대국어 ‘-이’형 부사화의 문법적 특성”, 언어과학연구 27, 365-384.]
- Haspelmath, M. 1996. Word-class-changing Inflection and Morphological Theory, *Yearbook of Morphology 1995* (G. E. Booij, Jaap van Marle eds.), 43-66. Kluwer Academic Publishers.
- Huddleston R. and G. Pullum. 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wang, Hwa-sang. 2006. “The Grammatical Category of ‘-i(이)’ Adverbs in Korean,” *Korean Linguistics* 32, 265-287. [황화상. 2006. “-이’형 부사어의 문법 범주,” 한국어학 32, 265-287.]
- Hwang, Hwa-sang. 2013. “One Type of the Coordinative Adverb Phrase-The Formation and Syntactic Structure of the ‘adjective-adverb’ Type of Adverb Phrase,” *Korean Linguistics* 60, 85-110. [황화상. 2013. “-고’ 접속 부사구의 한 유형-‘형용사-부사’형 접속 부사구의 성립과 통사구조,” 한국어학 60, 85-110.]
- Kim, Ilhwan. 2007. “Category of ‘-yi’ and ‘-ge’ and their Semantic Interpretatio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2.3, 411-431. [김일환. 2007. “-이’와 ‘게’의 범주와 의미 해석,” 언어 32.3, 411-431.]
- Kim Keon-hee. 2006. “The Adverbial Use of Adjectives: Focusing on ‘-i’ and ‘-key’ Combination Forms,” *Morphology* 8.2, 313-337. Bakijeong. [김건희. 2006. “형용사의 부사적 쓰임에 대하여-‘-이’와 ‘-게’의 결합형을 중심으로,” 형태론 8.2. 313-337. 박이정]

- Kim Keon-hee. 2016. "The Adverb-transformation of 'adjective+key'-Focused on the Analysis of (Mainly used 'adjective+key) in the Basic Korean Dictionary-," *Korean Language Research* 41, Hanmal Yongu Hakhoe. [김건희. 2016. "'형용사+게'의 부사되기-표준국어대사전의 '형용사+게' 꼴로 쓰여' 분석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41, 5-36.]
- Kim, Mingook. 2008. *A Study on Synchronic Word-formation by Suffixation-focused on the Boundary of Syntactic Construction and Morphological Construction*, MA thesis, Yonsei University. [김민국. 2008. 접미사에 의한 공시적 단어형성 연구-통사적 구성과 형태적 구성의 경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Koo, Bon-Kwan. 1996. *A Study on the Derivation in the 15th Korean*.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구본관. 1996.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국어학총서 30, 태학사.]
- Koo, Bon-Kwan. 1998. *A Study on the Derivation in the 15th Korean*. Taehaksa. [구본관. 1998.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국어학총서 30, 태학사.]
- Koo, Bon-Kwan. 2004. "Word-formation of 'X+게' in Middle Korean," *Korean Language & Literature* 136, 105-134. [구본관. 2004. "중세국어 'X+게' 부사형성", *국어국문학* 136, 국어국문학회, 105-134.]
- Lee, Dongseok. 2015. "The Research Performance and Task of Adverb Derivation in Middle Korean," *Korean Historical Linguistics* 21, 95-153. [이동석. 2015. "중세국어 부사 파생법의 연구 성과와 한계," *국어사연구* 21, 95-153.]
- Mun, Suk-yeong. 2017. "'ges' Clausal Nominalization in the Korean Language Form a Typological Perspective," *Korean Linguistics* 84, 33-88. [문숙영. 2017. "유형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것' 명사절", *국어학* 84, 33-88.]
- Mun, Suk-yeong. 2019. "Typological Characteristics of Adverbs and Adverbial Clauses in the Korean Language," *Korean Literature & Linguistics* 187, 5-53. [문숙영. 2019. "한국어의 부사 및 부사절의 언어유형적 특징", *국어국문학* 187, 5-53.]
- Payne John, Rodney Huddleston, and Geoffrey K. Pullum. 2010. "The distribution and category status of adjectives and adverbs," *Word Structure* 3.1. 31-81.
- Plank, Frans. 1994. Inflection and Derivation. In Asher, R.E. (ed.)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vol. 3. Oxford: Pergamon Press, 1671-1678.
- Quirk, Randolph., Greenbaum, Sidney, Leech, Geoffrey, and Svartvik, Jan.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Pearson Longman.
- Song, Cheol-eui. 1992. *A Study on Derivational Word Formation in Korean*.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송철의. 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Stephany, Ursula. 1982. "Inflectional and Lexical Morphology: a Linguistic Continuum," *Glossologia* 1, 27-55.
- Stump, Gregory T. 2005. "Word-Formation and Inflectional Morphology," *Handbook of Word-Formations* (Štekauer P., and R. Lieber, eds.), 49-71. Netherlands: SpringerLieber.
- Woo, Soon Jo. 2001. "Evidences against the so-called Adverb-deriving Suffix '-i' and Alternative Analysis." *Linguistics* 28, 129-154. [우순조. 2001. "구문분석기 개발

의 관점에서 본 ‘이’ 파생접사의 문제와 대안적 분석-내부 논항을 중심으로,”
언어학 28, 129-154.]

김종록. 1989. “부사형 접사 ‘-이’와 ‘-게’의 통시적 교체,” 국어교육연구 21, 115-152.
안병희·이광호. 1990. 중세국어 문법론. 학연사.

문숙영, 교수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E-mail: suyeong@sun.ac.kr

Received: November 21, 2022
Revised: December 23, 2022
Accepted: December 23, 2022